미국 마감 시황

2008.12.05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4일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감원 계획 소식과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고용감소 불안감의 증폭과 유통업체들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가 제기되며 하락.

이날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15.45p(2.51%) 떨어진 8,376.24에 장을 마감. GM과 포드가 각각 16.1%, 6.7% 하락. 유가급락으로 엑손모빌이 3.2% 하락하는 등 에너지주 하락세를 주도.

S&P500 지수는 25.52p(2.93%) 하락한 845.22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6.82p(3.14%) 떨어진 1,445.56을 기록.

AT&T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4%에 이르는 1만2,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 발표. 이번 감원으로 6억달러에 이르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. 듀폰은 4/4분기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과 함께 6,500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 발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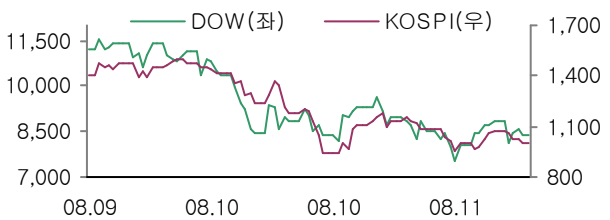
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전월의 53만건에서 2만1,000건 감소한 50만9,000건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50만명을 넘으며 고용감소 불안감을 확인.

국제쇼핑센터협회(ICSC)가 월마트를 제외한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두자릿수 대의 감소를 나타냈다고 발표하여 소비위축 우려를 재확인. 월마트는 매출이 전년보다 3.4%오르며 비교적 선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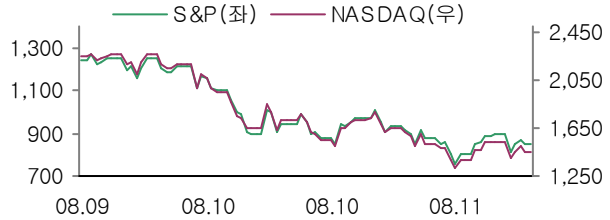
다음주로 예정된 GM 구제자금 지원방안의 의회표결 통과여부에 대한 불안감의 확산과 GM이 사전조정 파산을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증시에 악재로 작용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376.24	-2.51	-4.01	10.91	-12.98	-27.37	-37.70
S&P(좌)	845.22	-2.93	-4.78	12.33	-15.96	-33.71	-43.08
NASDAQ(우)	1,445.56	-3.14	-5.65	9.83	-18.79	-38.06	-45.79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